

한중 미각어 ‘쓰다’, ‘끓’ 계열 어휘의 의미 확장 및 개념화 양상 대조 연구

이선희*

【목 차】

1. 서론
2. 의미 확장 기제
3. ‘쓰다’, ‘끓’의 형태적 특징 및 사전 기술 양상 대조
4. ‘쓰다’, ‘끓’의 의미 확장 및 개념화 양상 대조
5. 결론

【초록】

본고는 한중 미각어 ‘쓰다’, ‘끓’ 계열 어휘를 대상으로 의미 확장 및 개념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1차적으로는 사전에 기술된 의미 항목을 대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풍성한 표현 양상을 미각, 후각, 시각, 청각, 감정 및 태도, 일·사건, 사람, 날씨 영역 등으로 분류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어휘의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해 Fauconnier & Turner(1997)에서 제시된 인지언어학의 핵심이론인 개념적 혼성 이론을 이용하여 각 의미의 혼성공간 및 발현구조에 대해 묘사하였다. 이러한 어휘의 의미 확장 과정은 신체적 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쓴맛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느낌에 대한 경험이 의미 확장 양상에서도 대부분 부정적 가치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휘의 의미 확장은 인간의 체험에 근거하며, 또한 개별 언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특수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키워드】 미각어, 쓰다, ‘끓’, 의미 확장, 개념화, 개념적 혼성, 한중대조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과 강사 (molihual6@naver.com)

1. 서론

우리 몸의 감각기관은 우리 자신이 세계와 소통하는 원초적이며 기본적 통로이다(임지룡 2017: 335). 그 중에서 미각은 맛을 느끼는 중요한 감각 기능으로서 음식물에 대한 맛을 평가한다. 대표적으로 ‘달다/甜’, ‘시다/酸’, ‘짜다/咸’, ‘맵다/辣’, ‘쓰다/苦’와 같은 기본적인 맛이 있다.¹⁾ 이러한 어휘를 ‘미각어’라고 부르며 미각 자극에 대한 반응을 기술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 미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을 개념화한다. 예를 들어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말은 ‘쓰다’, ‘달다’와 같은 미각어를 통해 감정 및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미각어는 의미 생성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맛 감각 표현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이승명 1988: 335). 미각은 모든 인류가 동일한 경험에서 비롯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각 기관 중 하나지만 서로 다른 언어권 화자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른 표현을 갖게 되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중 ‘쓰다’, ‘苦’계열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해 인지언어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의미 확장의 신체화와 관련된 인지적 동기를 살펴봄으로써 어휘의 의미 확장은 신체화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언어의 보편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의 한국어화자와 중국어화자의 미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언어에 드러나는지 그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쓴맛은 우리가 쓴맛의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느껴지는 맛으로서 불쾌감을 자극한다. 보통 ‘달다’와 대조적인 맛을 일컫는다.

현재까지 한국어와 중국어 개별 언어의 미각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많은 업적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쓰다’ 및 ‘苦’계열 어휘를 단일 대상으로 하여 논의한 성과는 찾기 어렵다.²⁾ 또한 한중대조 연구 분야에서 ‘쓰다’ 및 ‘苦’계열 어휘를 부분적으로 논의한 연구 중 인지언어학적 관점으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감정 영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졌거나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말뭉치에 출현하는 미각어의 사용 분포를 살펴보면, ‘달다(29.3%) > 쓰다(24.3%) > 맵다(20.9%) > 시다(13.0%) > 짜다(12.5%)’의 빈도를 보인다. 또한 주목할

1)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맛의 갈래는 다양하다. 그러나 인체·생리학적으로 볼 때 그 바탕은 4가지 또는 5가지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다. 4가지 설에 대한 주장은 ‘달다’, ‘쓰다’, ‘시다’, ‘짜다’로 표시되는 ‘단 맛’, ‘쓴 맛’, ‘신 맛’, ‘짠 맛’ 등 4가지 맛이 사람이 느끼는 기본 미각이라는 주장이고 여기에 ‘맵다’로 표시되는 ‘매운 맛’을 더 보탠 것은 5가지 설이다. 국어에서는 5가지 미각설이 지배적이다. (이승명 1988: 99-100)

2) 현재까지 국내 연구의 국어학계, 중국어학계, 한중 대조언어학계에서 논의된 연구 성과를 살펴본 결과, ‘쓰다’ 및 ‘苦’를 단일 대상으로한 논고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미각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쓰다’와 ‘苦’를 부분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한중 대조 연구학계에서는 관련 연구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형태론적 관점에서 한중 색채형용사와 미각형용사를 대상으로 파생법에 대해 논의한 박일성(2012)의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미각어로 나타난 한중 감정 표현의 개념화 양상에 대해 논의한 석수영(2014)의 연구와 미각어의 은유화 특징에 대해 논의한 呂貞男(2012)의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각어의 파생의미, 고빈도 미각 고정표현의 교육방안에 대해 논의한 쉬야(2017)의 연구가 있다. 이처럼 미각어의 파생법, 의미 확장, 고정표현, 교육방안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만한 점은 추상의미로 ‘쓰다’의 사용 분포가 32.8%로 다른 미각어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문금현 2015: 395-396). 이처럼 ‘쓰다’는 사용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의미 확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미각어로서 연구 가치를 지닌다. 이에 본고는 미각어 연구 중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던 ‘쓰다’ 계열 어휘를 대상으로 그 개념화 양상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의미 확장 기제

의미 확장 과정에는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가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은유에 대한 연구는 1980년에 출간된 Lakoff & Johnson의 『*Metaphors We Live by*(삶으로서의 은유)』를 기점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전통언어학에서 은유를 언어의 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적, 수사적, 즉 기교적 도구로 간주했던 것과 달리 인지언어학에서는 우리 일상 언어 생활에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은유적임을 밝혔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은 체험주의(experientialism)에서 비롯된다. 체험주의란 우리의 추상적인 사고 및 의미가 근본적으로 일상의 신체화된 체험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Ungerer & Schmid 1996: xi-xii, 임지룡 2005: 202). 체험주의는 전통적으로 철학적 논의에서 경시되거나 무시되어 온 신체의 역할에 새로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인간의 이성과 이해에 관해 보다 포괄적이고 적절한 해명을 시도하는 것이다(노양진 1995: 344). 즉 신체적 경험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개념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언어 사용과 이해는 인간의 체험에 기초를 두며 신체적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쓰다’ 및 ‘끓’의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본고의 분석 기제인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 개념적 혼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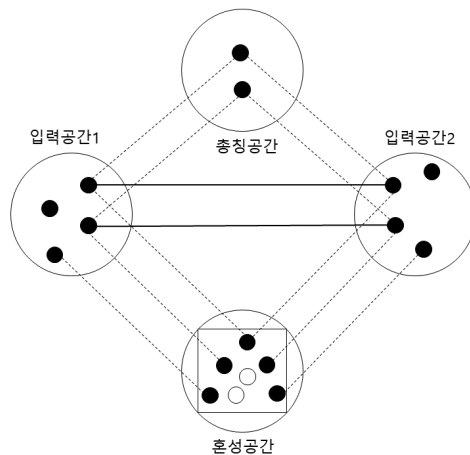
1)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

Lakoff & Johnson(1980)이 제시한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는 신체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인지과정이다. 개념적 은유는 유사성 관계에 있는 두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하고 구체적인 것을 통해 낯설고 추상적인 것을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전자를 근원영역(source domain), 후자를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 하며 근원영역을 이용하여 목표영역을 개념화하여 이 두 영역의 사상(mapping)을 통해 은유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인내는 쓰다]라는 은유적 표현에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인 ‘인내’를 우리에게 익숙하고 구체적인 ‘쓴맛’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두 영역 사이에는 체계적인 대응 관계가 있으며 은유적 표현은 우리의 신체적 활동 및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은유적 표현은 우리의 일상적 언어에서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다.

개념적 환유는 동일한 인지모형 내에서 매체라는 한 개념적 실체가 목표라는 다른 개념적 실체에 정신적 접촉을 제공하는 인지과정이다(김동환 2013: 195). 즉, 개념적 환유는 인접성 관계에 의해 구조화되는 것으로 한 영역 안에서 어떤 실체를 지시할 때 그 실체 대신 그와 관련된 대표적이고 현저한 실체를 통해 지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苦脸(고통스러운 얼굴)’은 음식의 맛을 나타내는 ‘苦’가 생리적 반응인 ‘고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리적 반응으로 감정을 대신하여 나타낸 환유적 표현이다.

2) 개념적 혼성 이론

개념적 혼성 이론은 Fauconnier & Turner(1997)이 제안한 것으로 강력한 인지 과정을 이용해 언어의 의미구성 방식을 다루는 인지언어학의 방법론이다(김동환 2013: 467). 이것은 기존의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 이론의 한계³⁾를 극복하고 제시된 새로운 대안으로서 은유의 인지적 기능을 더 체계화 시켰다. 개념적 혼성은 입력공간 구축, 공간횡단 사상, 투사로 이루어진 인지과정으로서 네 가지의 정신공간(mental space)으로 구성된다.



<그림1> 개념적 통합 연결망(Fauconnier 1997: 151, 김동환 2013: 474)

먼저 입력공간들 사이의 체계적인 대응인 공간횡단 사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입력공간에 공통된 총칭공간에 의해 한정된다. 총칭공간은 공간횡단 사상의 전제조건이 되고, 입력공간들이 공유하는 추상적인 구조와 조직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혼성공간은 입력공간1과 입력공간2가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입력공간에 없는 새로운 발현구조가 형성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의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입력공간(input model), 혼성공간(blended space), 총칭공간(generic space)은 밀접하게

3) 개념적 은유의 한계는 첫째, 개념적 은유를 찾는 데만 초점을 두고, 개별적인 언어적 은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둘째, 목표영역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셋째, 개념적 은유로 설명되지 않는 은유 표현이 있다(김동환 2004: 37-39).

연결된 망을 형성하는데 그것을 ‘개념적 통합 연결망’이라고 한다. 개념적 혼성은 발현구조를 만들기 위한 인지 과정으로 발현구조에는 주어진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실마리가 들어 있다. 그리하여 개념적 혼성은 ‘입력공간 구축 → 입력공간의 연결 → 혼성공간 형성 → 발현구조 창조’를 통해 발현구조를 창조한다(김동환 2013: 467-475).

개념적 혼성 이론은 언어 표현의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을 논의한다. 의미가 구성된다는 것은 언어에 의해 안내를 받아 접근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결국 의미란 뇌 속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비인간적이며 객관적인 연산장치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을 개념화하도록 해주는 일반 인지 과정의 산물임을 말한다. 즉 의미구성은 개념적 혼성의 결과로 발현되는 것이다(김동환 2012: 4).

3. ‘쓰다’, ‘끓’의 형태적 특징 및 사전 기술 양상 대조

1) 형태적 특징

한국어의 단어 형태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뉜다.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뉘며, 파생어는 다시 접두사에 어근이 결합된 접두파생과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된 접미파생으로 나뉠 수 있다. ‘쓰다’의 경우, 접미파생으로 미각어근 ‘쓰다’와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와 합성어 형태가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일어	쓰다		
복합어	파생어	접두파생(접두+어근)	—
		접미파생(어근+접미)	쌈쌀하다, 씹쓸하다, 씹쓰레하다, 씹쓰름하다
	합성어	어근+어근	쓰디쓰다

<표1> 국어 ‘쓰다’ 계열 어휘⁴⁾

파생어의 접미파생의 경우 어근이 ㅅ로 바뀌는 현상은 모음교체 현상에 의한 것이며 공식의 (ㄷ)는 어근의 첨가형으로 보아야 옳다. 합성어 ‘쓰디쓰다’는 어근에 ‘디’의 접미사가 연결되어 미각을 표시하는 것이다(김찬구 1985: 25-26). 이밖에도 고빈도 미각표현으로 ‘쓴+명사’

4)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쓰다’ 계열 어휘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논의	‘쓰다’ 계열의 어휘
배해수(1982)	검쓰다, 쌈쌀하다, 쌈싸름하다, 씹쓸하다, 씹쓰름하다, 씹쓰레하다
김찬구(1985)	쓰다, 검쓰다, 소태갈다, 쌈쌀하다,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씹쓸하다, 씹쓰름하다, 씹쓰레하다, 쓰디쓰다
이승명(1988)	쌈사래하다, 쌀살하다, 씹쓰레하다, 쓰디쓰다
문금현(2015)	쓰다, 쓰디쓰다, 씹쓰레하다, 씹쓸하다, 씹쓰레하다

의 형태인 쓴웃음, 쓴맛, 쓴소리, 쓴잔, 쓴물, 쓴내, 쓴말, 쓴 싸움, 쓴 입맛, 쓴 침 등이 있다 (문금현 2015: 398).⁵⁾

중국어 단어 형태는 크게 单纯词(단순어), 合成词(합성어), 缩合词(축약어) 세 가지로 나뉜다. 합성어는 다시 复合式(복합어), 重叠式(중첩어), 附加式(파생어)로 나뉘며 복합식은 联合型(연합식), 偏正型(수식식), 补充型(보충식), 动宾型(술목식), 主谓型(주술식)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파생식은 前缀+词根(접두사+어근), 词根+后缀(어근+접미사)로 분류된다. ‘苦’계열 어휘를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单纯词 (단순어)	苦		
合成词 (합성어)	复合式 (복합어)	联合型(연합식)	痛苦 困苦 悲苦 惨苦 艰苦 穷苦 贫苦 苦难
		偏正型(수식식)	苦境 苦海 苦酒 苦人 苦工 苦果 苦学 苦事 苦味 苦笑 苦心 苦思
		补充型(보충식)	—
		动宾型(술목식)	吃苦 受苦 叫苦
		主谓型(주술식)	何苦
	重叠式 (중첩어)	苦苦(的)	
	附加式 (파생어)	前加式 (前缀+词根) (접두사+어근)	—
		后加式 (词根+后缀) (어근+접미사)	苦头 苦兹兹
缩合词 (축약어)	—		

<표2> 중국어 ‘苦’계열 어휘⁶⁾

<표1>과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는 단어의 중심이 되는 어근에 접두사와 접미사를 비롯한 다른 형태소들이 덧붙여 단어가 구성되는 교착어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파생 미각어를 생성한다. 또한 파생어의 형태구조가 복잡한데 반해 중국어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어는 낱말의 형태상의 변화가 없는 고립어적 특성으로 인해 결합능력이 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합성 미각어를 생성한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5) 이러한 표현들은 형용사 ‘쓰다’의 어간 ‘쓰’에 관형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현’이며 모두 ‘단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쓴웃음, 쓴맛, 쓴소리, 쓴잔, 쓴말’은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쓴물’의 경우에는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속에 미생물 때문에 빛이 변한 바닷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쓰다’의 의미 확장으로 보기 어렵다. ‘쓴내’는 단어로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쓴 싸움’, ‘쓴 입맛’은 이미 띄어쓰기를 했으므로 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쓴 침’은 붙여서 ‘쓴침’으로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6) 黄伯荣·廖序东의 『现代汉语』(1991: 222-224)에 제시된 분류법을 바탕으로 金善熙(2012: 22-23)에서 나열된 어휘 항목과 다른 어휘 항목을 추가하여 표로 재구성하였다.

2) 사전 기술 양상 대조

『표준국어대사전』⁷⁾과 『现代汉语词典』第6版(2012)에 기술된 ‘쓰다’와 ‘끓’의 의미항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중국어 ⁸⁾
기본 의미	미각	①-「1」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 씀바귀의 맛과 같다.	① 像胆汁或黄连的味道(跟“甘、甜”相对) 담즙, 황련과 같은 맛(‘달다’와 상대적)
확장 의미	미각	②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없다.	—
	추상	④-「2」 달갑지 않고 싫거나 괴롭다.	② 痛苦; 难受 고통스럽다, 괴롭다
		—	③ 使痛苦; 使难受 고통스럽게 하다, 괴롭게 하다
		—	④ 苦于 -에 괴롭다
		—	⑤ 有耐心地; 尽力地 참을성 있게, 힘껏

<표3> ‘쓰다’와 ‘끓’의 사전 기술 양상 대조

사전에 기술된 양상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한약, 소태, 씀바귀, 중국어에서는 담즙, 황련과 같이 쓴 맛을 비유하는 구체적인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어사전과 중국어사전에서 ‘쓰다’와 ‘끓’에 대한 기본 의미는 동일하게 쓴맛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의 맛으로 기술하고 있다. 확장 의미 양상을 살펴보면 추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는 점과 괴로움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쓴맛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고통스럽고 싫은 느낌이나 기억과 경험 그리고 거부 대상에 대한 표현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의미 확장되었음을 알려준다(문금현 2015: 407). 그러나 두 언어에는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경우 입맛이 없음을 표현함과 달리 중국어에는 이러한 의미항목이 없다. 둘째,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의 경우 품사적으로 피동, 부사의 용법으로 다양하게 쓰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중국어의 경우 기본의미에서 갖고 있는 쓴맛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 외에도 의미항목 ⑤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⁹⁾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사전에서 기술된 의미로만 쓰이고 있을까? 실제로도 한중 언어에서 이러한 의미적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7)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사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https://stdict.korean.go.kr>)

8) 중국어 사전에 기술된 의미항목 중 방언에서 사용되는 ⑥번 의미항과 성씨로 사용되는 ⑦번 의미항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9) 이선희(2018: 2)의 연구에서 좋은 의미도 나쁜 의미도 아닌 중립가치의 단어들은 ‘有+N’의 격식에서 긍정적으로 가치 의미가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有耐心地’의 의미를 긍정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쓰다’와 ‘끓’가 단언어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를 구성형태소로 포함하고 있는 복합어 및 앞서 살펴본 이 계열 단어를 대상으로 말뭉치 자료 및 사전에 수록된 어휘 항목을 대상으로¹⁰⁾ 분석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4. ‘쓰다’, ‘끓’ 의미 확장 및 개념화 양상 대조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쓰다’와 ‘끓’의 예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쓰다’의 확장 의미는 미각 영역, 후각 영역, 시각 영역, 청각 영역, 감정 및 태도 영역,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어의 ‘끓’는 미각 영역, 후각 영역, 시각 영역, 감정 및 태도 영역, 일 사건 영역, 사람 영역, 날씨 영역, 총 7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총 여덟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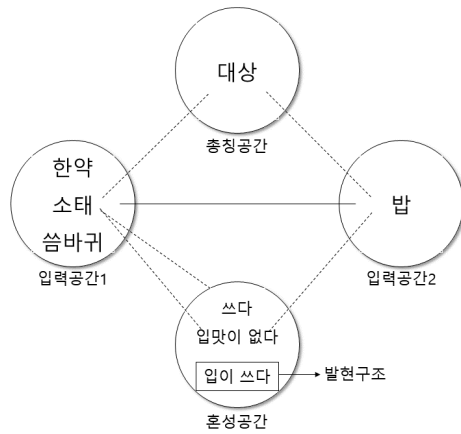
1) 미각 영역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적으로 ‘쓰다’와 ‘끓’는 미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식욕이 없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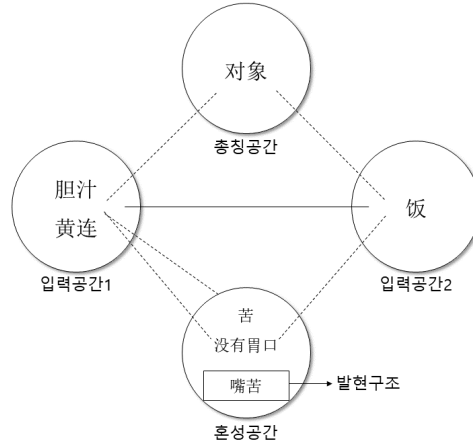
- (1) 나는 아침밥을 걸렀는데도 **입안이 썼고**, 식욕이 동하지 않았다.
- (2) 他忽然觉得喉咙发干, **满嘴苦涩**, 而且很疲倦, 疲倦得几乎要呕吐。
그는 갑자기 목마름을 느꼈다. 입이 쓰고 피곤했다. 토할 지경이었다.
- (3) 周炳虽然肚饿, **嘴苦**, 还不甘心, 可也实实在在没有法子可想。
周炳은 배도 고프고 입맛도 없고 기분도 꼴꼴하지만 정말로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었다.

위의 예문에서 ‘쓰다’는 음식물에 대한 1차적인 맛 평가가 아닌, 식욕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쓴 음식물에 대한 우리의 먹기 싫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먹기 싫음, 즉 식욕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어의 ‘입이 쓰다/입에 쓰다’와 같은 표현은 입 안에 쓴맛이 돌아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맛없음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식욕까지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정수진 2005: 81). 이러한 표현은 식욕이 돋고 입맛이 좋음을 나타내는 ‘입이 달다’와 상반적이다.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0) 단어는 문장이라는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권희정 2008: 102) 말뭉치 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며, 단어의 의미 확장과 단어결합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권희정 2008: 102) 사전에 수록된 어휘 항목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어 미각어 중 한자어는 제외하고 고유 미각어 ‘쓰다’ 및 계열 어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예문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에서 제공하는 세종말뭉치(<https://ithub.korean.go.kr>)에서 발췌하였으며 중국어 예문은 북경대학교 언어문화연구소에서 제공하는 CCL(<http://ccl.pku.edu.cn>)에서 발췌하였다.



<그림2> '입이 쓰다'의 혼성공간



<그림3> '嘴苦'의 혼성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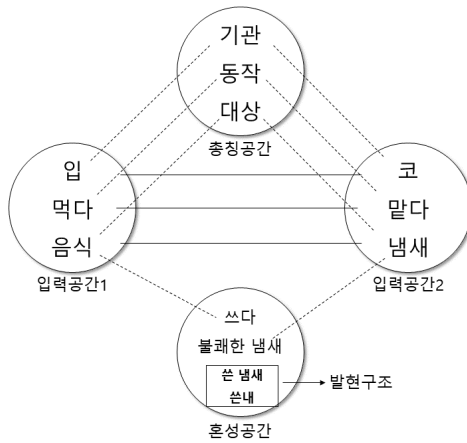
<그림2>와 <그림3>과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 공통적으로 입력공간1의 한약, 소태, 쓴바귀, 담즙, 황련은 입력공간2의 밥에 대응된다. 충청공간을 통해 이 두 입력공간의 공통된 요소인 '대상'은 이러한 공간화단 사상의 동기를 제공한다. 혼성공간에서는 입력공간1과 입력공간2의 요소인 '쓰다'와 '입맛이 없다'라는 속성이 투사되어 각각 '입이 쓰다'와 '嘴苦'라는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2) 후각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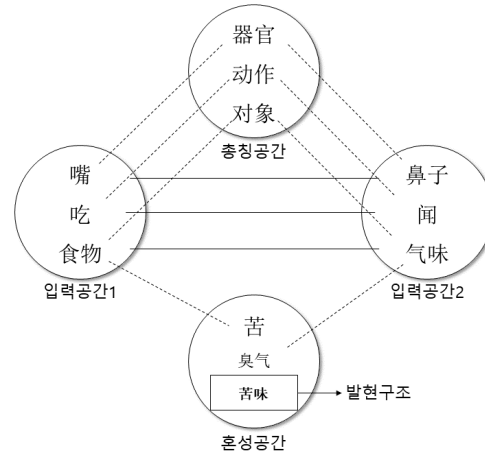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적으로 '쓰다'와 '苦'는 후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냄새'와 공기관계를 이루며 좋지 않은 냄새를 나타낸다.

- (1) 성진이 소주의 **쓴 냄새**를 후후 하고 내뿜으면서 말했다.
- (2)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헉헉거리는 엄마의 숨에서 **쓴내** 섞인 단내가 훅 끼쳐왔다.
- (3) 空气中流溢青蒿和艾叶**苦味**的情形, ……
공기 중에는 청호과 애엽의 연한 쓴 냄새가 흘러 넘친다.
- (4) 那幽幽的清香伴随着淡淡的**苦味**, 刺激着你的嗅觉, ……
그 은은한 향기에는 나오는 연한 쓴 냄새는 당신의 후각을 자극해,

미각과 후각은 연결되기가 매우 쉽다. 몸의 구조상으로도 입과 코는 아주 가까이 있어서 음식을 씹으면 공기가 입으로부터 위로 밀려 올라가기 때문에 맛은 자연히 냄새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김중현 2001: 36).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동일하게 예문(1), (3)과 같이 쓴맛이 느껴지는 음식물, 즉 소주, 청호, 애엽의 냄새를 쓰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냄새를 맡았을 때 느껴지는 쓴맛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 또한 예문(2), (4)에서는 냄새에 대한 2차적 판단으로 불쾌한 냄새를 '쓰다'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4> '쓴 냄새'의 혼성공간



<그림5> '苦味'의 혼성공간

<그림4>와 <그림5>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 공통적으로 입력공간1에서 인지한 쓴맛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입력공간2의 냄새로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하였다. 쓴맛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인식과 동일시 여기며 혼성공간에서는 '쓰다'와 '불쾌한 냄새'와 같은 요소들에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개념적 혼성을 통해 각각 '쓴 냄새', '苦味'이라는 새로운 발현구조가 생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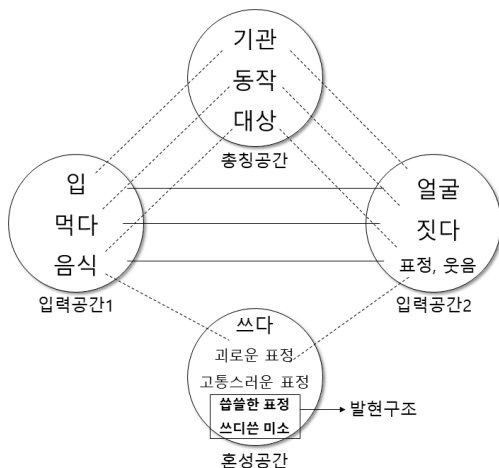
3) 시각 영역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적으로 '쓰다'와 '苦'는 시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표정', '웃음'과 공기 관계를 이루며 좋지 않은 표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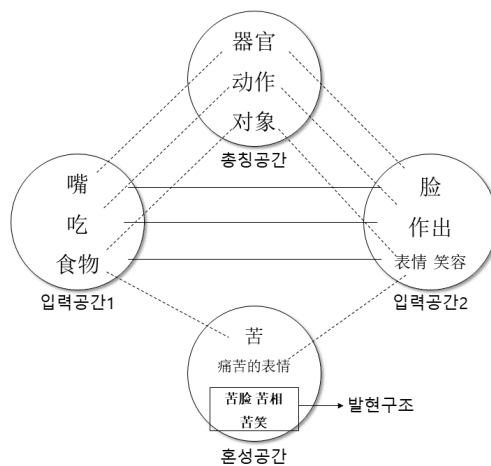
- (1) 저 사람 탓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쓴웃음**만 짓고 왔다.
- (2) 뭔가 **썩쓸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 (3) 현실의 부조리를 알게 되면 역시 입가에 **쓰디쓴 미소**를 띤다.
- (4) 기다렸던 국민들은 결국 덧칠에 덧칠을 더한 화폭을 바라보면서 **썩쓰레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 (5) 两个人相视**苦笑**,不用说,友情在尔虞我诈的商业竞争中已不复存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비즈니스 경쟁에서 우정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6) 儿子**苦着脸**对爸爸说：“气球被我吹爆了。”
아들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버지께 말했다. “제가 풍선을 터뜨렸어요.”
- (7) 店经理一脸**苦相**。
점장은 찡그린 표정을 지었다.

표정은 감정이나 심리상태가 얼굴에 나타나는 것으로 문화와 상관없이 만국공통적으로 동

일한 인간의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쓴 음식물을 섭취할 때 불쾌한 느낌으로 인해 자연스레 얼굴이 찡그려지고 입이 빠죽거려진다. 이러한 신체적 경험이 얼굴 표정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 되어 마치 쓴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와 동일한 괴로운 표정을 나타낸다. 고통스러운 때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실제반응을 맛을 통해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예문과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동일하게 표정, 얼굴, 미소, 웃음 등을 수식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6> '씹쓸한 표정/미소'의 혼성공간



<그림7> '苦脸/苦相/苦笑'의 혼성공간

<그림6>과 <그림7>과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 공통적으로 입력공간1에서 드러진 쓴맛에 대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부정적 인식이 입력공간2의 표정과 웃음의 요소로 투사되어 개념적 혼성을 통해 괴로운 표정, 고통스러운 표정을 개념화하여 각각 ‘쓸쓸한 표정/미소’, ‘苦脸/苦相/苦笑’의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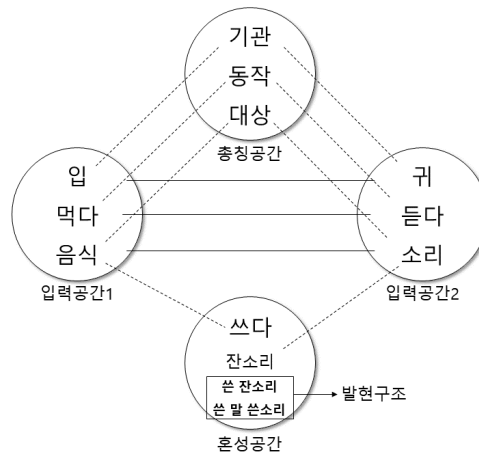
4) 청각 영역

한국어에서 ‘쓰다’는 청각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소리’, ‘말’등과 결합하여 귀에 거슬린다는 뜻을 표현한다.

- (1) 어머니가 그 **쏟** 잔소리를 수저 위에 듬뿍듬뿍 올려놓아도 ...
- (2) 입에 **쏟** 말은 듣기 싫은 말이 되기 쉽지만, ...
- (3) 상업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한국영화계에 **쏟**소리를 내뿜었고 ...

말의 내용이 듣기에 거슬리거나 청자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말을 ‘쓰다’를 통해 개념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쓴 약을 먹었을 때의 경험과 동일하게 듣기에는 거슬리지만 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쓴 약을 먹었을 때의 경험

에 의해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약은 먹을 때는 그 맛이 써서 곤혹스럽지만 먹은 후에는 병세를 호전하게 하고 아픔을 낮게 하는 효능이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충고나 꾸지람은 들을 때는 거슬리지만 후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경험을 개념화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며 중국어의 ‘刺耳’와 대응된다.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8> '쓴 잔소리/쓴 말/쓴소리'의 혼성공간

<그림8>과 같이 한국어의 ‘쓰다’는 입력공간1의 섭취자로 하여금 느껴진 쓴 음식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입력공간2의 청자로 하여금 느껴지는 듣기 싫은 소리, 즉 잔소리와 같은 요소로 선택적으로 투사된다. 이것은 개념적 혼성을 통해 쓴 음식물을 먹었을 때 거부감이 들듯이 청자로 하여금 듣기 싫은 소리를 개념화하여 ‘쓴 잔소리/쓴 말/쓴소리’라는 발현구조를 생성하였다.

5) 감정 및 태도 영역

심리적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 ‘쓴맛’은 매우 자극적이어서 맛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생리적 불편함이 심리적 영역에 투사되어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전이된다(이범열 2016: 437). 즉, 이는 어떤 상황, 상태에 대한 주체의 낮은 만족도가 부각된다. 아래에서는 ‘쓴맛’이 ‘감정’ 및 ‘태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고통, 괴로움

쓴맛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러한 쓴 맛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극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타낸다.

- (1) 남자는 다시 **쓰디쓴 고통**을 맛봐야 했다.

- (2)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나라나 지도자는 **쓴 대가**를 치른다.
- (3) 다시 한 차례 쓰디쓴 좌절과 **쓰라린 자기 시련**의 과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고 있었다.
- (4) 미국인들은 네덜란드령 인도의 **쓴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 (5) 我才知道你心中的**痛苦**有多深。
나는 비로소 당신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다.
- (6) 因为我喜欢自由的个性,刚刚上任的时候**吃了不少苦头**。
저의 자유분방함 때문에 막 취임했을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쓴맛을 섭취할 때의 좋지 않은 느낌은 고통을 느낄 때의 감정과 유사하다.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신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쓴맛’은 ‘고통’, ‘괴로움’의 감정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경우 ‘고통, 대가, 시련, 경험’과 공기 관계를 이루며 고통스러움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이미 합성어로 고정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대표적인 어휘로 ‘痛苦’가 있다. 이는 아픔을 나타내는 단어 ‘痛’과 결합하여 아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苦闷’은 괴롭고 답답함을 나타내고, ‘苦恼’는 괴로운 고민을, ‘苦楚’, ‘惨苦’도 모두 고통스러운 감정을 나타낸다.

(2) 고생시키다

중국어에서 ‘끓’는 동사용법으로 고생시킴을 나타낸다.

- (1) 根据这种管理方式和教学体系实施, 尽管**苦了**学生, 但可能升学率暂时上升。
이런 관리 방법과 교육 시스템의 시행에 따라 학생들을 많이 힘들게 하지만 진학률은 일단 상승할 것이다.
- (2) 妈, 你这样苦了自己, 也**苦了**爸呀……”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 스스로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아빠까지도 괴롭히는 거야……

쓴 음식을 먹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주동적으로 고생을 겪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고생을 당함을 나타내는 의미를 苦로 표현하고 있다. 위의 예문(1)과 (2)에서 ‘끓’는 각각 ‘学生, 自己, 爸’라는 목적어를 취하며 동사의 용법으로 쓰임과 동시에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朱德熙 1982, 陆俭明 1994)에서 밝혀졌듯이 중국어 어휘 중에는 문법 범주인 품사가 여러 품사 역할을 동시에 겸하는 ‘兼类현상’이 있다. 즉, 중국어는 형태의 변화가 없고 중국어에서 품사는 고정적이지 못하며, 단어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품사가 결정된다(정은 2016: 140-141). 위 예문에서 ‘끓’는 한 단어 형태가 형용사, 동사의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지 능력과 ‘兼类현상’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해 沈家煊(1999: 04)에서는 “우리의 언어 능력은 인간의 인지와 사유 능력의 일부분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두뇌의 개념과 개념 구조 또한 본질적으로 환유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언어

의 문법 개념과 문법 구조 또한 자연히 환유적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지 방법이 문법에 나타나는 현상을 ‘문법 환유(grammatical metonym)’라고 할 수 있다”¹¹⁾고 언급하고 있다. 즉, 중국어에서는 인지 방법인 ‘문법 환유’를 통해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다.

(3) 언짢음, 아쉬움

한국어에서 ‘쓰다’는 고통스러운 감정 외에도 언짢음과 아쉬운 감정을 나타낸다.

- (1) 이혼대행사ایت 등장 **썩썩**.
- (2) 팀 전력이 워낙 약해 정규시즌이 끝나면서 바로 방망이를 놓고 **썩썩히** 퇴장했다.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쓴맛에 대한 경험은 한국어에서 어떤 일에 대한 달갑지 않고 언짢음, 아쉬움 즉 불쾌한 감정을 나타낸다. 예문(1)에서는 언짢은 상황에 대한 달갑지 않음, 유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예문(2)에서 ‘썩썩하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미각 영역의 개념을 통해 지각자의 경험에 대한 언짢음, 아쉬운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4) 노력

중국어에서 ‘苦’는 주동적으로 긴 시간 동안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 (1) 这是一位**刻苦**努力、勤于笔耕的作家。
이 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글을 잘 쓰는 작가이다.
- (2) 教育学生**刻苦**学习，自强不息。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교육한다.
- (3) 机会是留给那些**苦干**的人，……
기회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다.
- (4) 我知道这笔奖金渗透了女儿多少心血，记录着女儿多少次夜以继日的**苦战**。
이 장학금은 딸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딸의 며칠 밤낮의 고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스럽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함, 몹시 애를 씹을 ‘苦’로 나타낸다. 이처럼 중국어의 경우, ‘苦’가 부정적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11) 人的语言能力是人的一般认知和思维能力的一部分，两者密不可分。既然转喻是一般的认知和思维方式，头脑中的概念和概念结构本质上具有转喻的性质，那么语言中的语法概念和语法结构自然也具有转喻的性质。因此本文认为，语法中的“转指”本质上就是“转喻”，是转喻这种一般的认知方式在语法上的体现可称之为“语法转喻”。沈家煊，「转指和转喻」，《当代语言学》(第1卷)，1999，p.4.

(5) 끈기 있게

중국어에서 ‘끓’는 부사 용법으로 쓰여 ‘끈기 있게’, ‘힘을 다하여’라는 의미를 갖는다.

(1) 继续泪雨滂沱地苦苦相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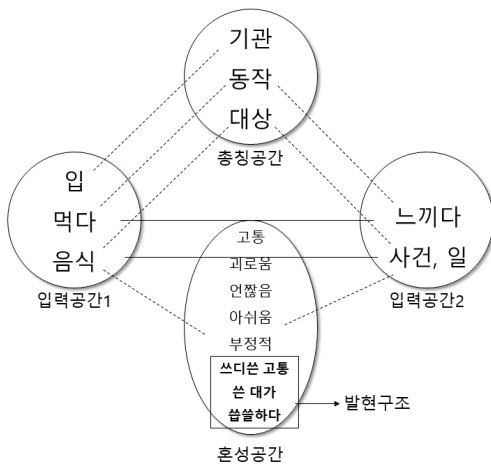
계속해서 울음을 쏟으며 간절히 설득했다.

(2) 回到家里仍在苦苦思索，心清闷闷不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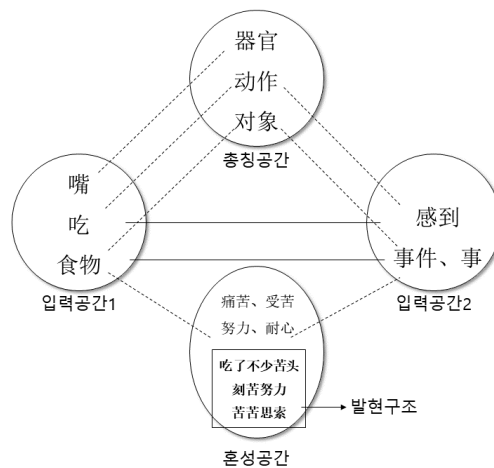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고민한다. 마음이 답답하다.

이는 어떤 일을 힘들게 노력해서 하는 것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끈기 있게 힘을 나타낸다. 위의 예문에서 ‘끓’는 중첩 형태인 ‘苦苦’로 쓰여 각각 동사 相劝, 思索를 수식하며 부사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앞서 살펴본 동사 용법 외에도 부사 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끓’는 품사적으로 자유롭게 넘나들을 알 수 있다.

‘쓰다’와 ‘끓’의 감정 및 태도 영역으로의 의미 구성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9> ‘쓰디쓴 고통/씹쓸한 감정’의 혼성공간



<그림10> ‘끓디쓴 고통/끓쓸한 감정’의 혼성공간

<그림9>와 <그림10>과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 공통적으로 입력공간1의 쓴 음식물에 대한 고통스럽다는 부정적 인식이 입력공간2의 어떤 일이나 사건을 겪을 때의 느끼는 감정 요소로 선택적으로 투사된다. 이것은 개념적 혼성을 통해 고통, 괴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개념화하여 각각 ‘쓰디쓴 고통’, ‘끓디쓴 고통’과 같은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 구성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안짱거나 아쉬운 감정으로 투사되어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중국어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다. 반대로 중국어의 경우, 한 단어가 여러 품사를 동시에 겸하는 특징으로 인해 동사 용법인 ‘고생시키다’, 부사 용법인 ‘끈기 있게’를 나타내며 ‘노력’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6) 일, 사건 영역

(1) 좋지 않은 결과, 손해

중국어에서 ‘苦’는 일, 사건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좋지 않은 결과’, ‘손해’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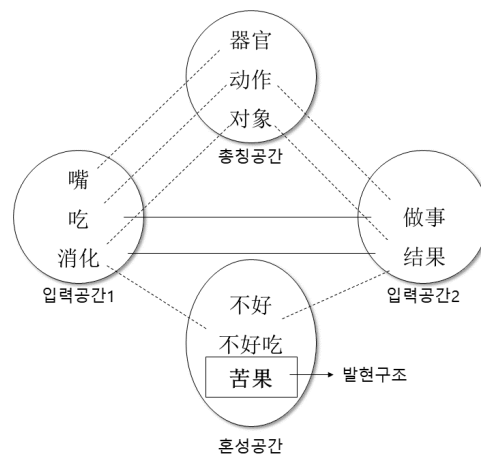
- (1) 他还小, 还不能充分品尝这枚**苦果**的滋味。

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쓰라린 경험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없다.

- (2) 因没有足够的证据, 只能自己承担败诉的**苦果** ……

증거가 부족해서 패소의 결과를 혼자 견딜 수 밖에 없다.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음식의 쓴맛은 우리에게 쓴맛 외에도 불쾌감을 주는 부정적인 맛의 느낌이 형성된다. 즉 쓴맛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바탕이 되어 어떤 일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라는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1> '苦果'의 혼성공간

<그림11>에서 입력공간1의 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경험이 입력공간2의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하여 혼성공간에서 ‘좋지 않다’는 부정적 요소로 선택적으로 투사되었다. 그 결과 개념적 혼성을 통해 ‘苦果’라는 새로운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2) 경제적 어려움

중국어에서 ‘苦’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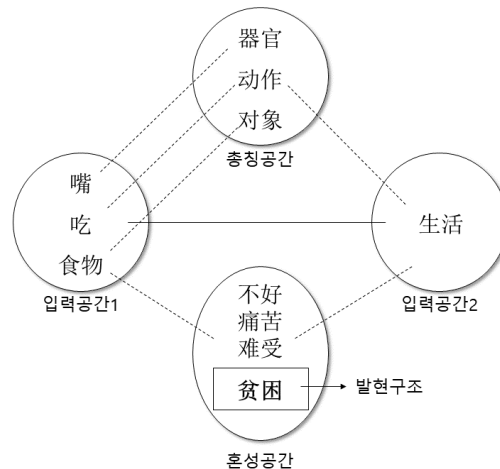
- (1) 他从小死了父亲, 家境很**贫苦**, ……

그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형편이 나빴다.

- (2) 长期生活**艰苦**的王杰, 终于不再为三餐而奔波, ……

오랫동안 형편이 어려웠던 王杰은 드디어 다시는 세 끼를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중국어에서 ‘끓’는 어떤 일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나타내고, 다시 의미가 확장되어 구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은 중국어에서만 나타나며 예문(3)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 가치를 쓴맛을 통해 개념화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예문 외에도 贫苦(빈곤, 빈곤하다), 寒苦(가난하다, 곤궁하다), 劳苦(고생, 고생하다), 艰苦(고달프다, 힘들고 어렵다), 困苦(생활상의 어려움, 빈고, 곤궁하여 고통스럽다), 清苦(청빈하다) 등이 있다.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2> ‘贫困’의 혼성공간

<그림12>에서 입력공간1의 쓴 음식을 먹는 행위는 입력공간2의 생활로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하고 혼성공간에서 ‘좋지 않음’, ‘괴로움’, ‘참을 수 없음’과 같은 요소들이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贫困’이라는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7) 사람 영역

중국어에서 ‘끓’는 사람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불행한 사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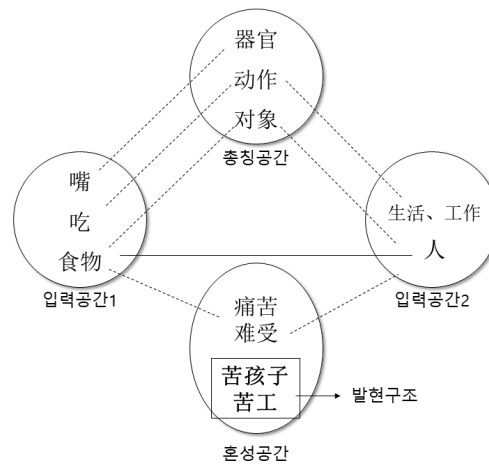
- (1) 他是一个**苦孩子**, 生下来一个月就从乡下被卖到了城里……

그는 불행한 아이이다, 태어난 지 한달 만에 시골에서 도시로 팔려 갔다.

- (2) 她被关在羊厂做**苦工**, 她在这里受尽了磨难。

그녀는 양 공장에 갇혀서 **苦工**이 되고, 여기에서 지긋지긋한 시달림을 당했다.
그녀는 양 공장에 갇혀서 힘든 일을 하고, 여기에서 지긋지긋한 시달림을 당했다.

위의 예문(1)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예문(2)에서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나타냈다.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3> '贫困'의 혼성공간

쓴맛에 대한 느낌이 사람으로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하여 개념적 혼성을 통해 쓴맛에 대한 고통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이 쓰다, 즉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발현구조를 생성하였다.

8) 날씨 영역

중국어에서 '苦'는 날씨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춥다'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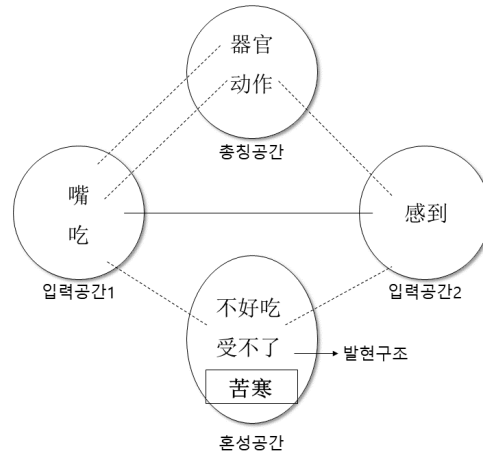
- (1) “宝剑锋从磨励出，梅花香自**苦寒**来”。

보검의 끝은 연마를 통해 만들어 지고, 매화의 향기는 추위로부터 나온다.

- (2) 为何齐来这关外**苦寒**之地，是否要合力害他？

어째서 모두 이 성밖 추운 곳으로 왔는지, 함께 그를 해치려고 하는 것인지.

위 예문에서 '苦'는 추움을 나타내는 단어 '寒'과 결합하여 몹시 추움을 나타낸다. 이것은 '苦'가 아픔, 고통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에서 다시 의미가 확장되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추운 날씨, 즉 혹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통 '매운 바람, 날씨가 맵다'와 같이 매운맛으로 표현한다(문금현 2015: 404).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4> '苦寒'의 혼성공간

<그림14>에서 입력공간1의 쓴 음식물에 대한 고통스러운 느낌이 입력공간2의 추위에 대한 느낌으로 공간횡단 사상이 발생하여 혼성공간에서 '참을 수 없다'는 부정적 요소로 선택적으로 투사되었다. 그 결과 개념적 혼성을 통해 '苦寒'이라는 새로운 발현구조가 생성되었다.

5. 결론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 미각어 중 '쓰다'와 '끓' 계열 어휘를 대상으로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해 의미 확장 양상과 개념화 과정에 대해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 새롭게 생성되는 추론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대조 분석을 통해 언어의 의미는 우리의 신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확장된다는 보편성을 밝히고 한중 화자의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의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먼저, '쓰다'와 '끓'의 형태적 특징을 비교해보면 한국어의 경우 교착어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파생 미각어를 생성하는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합성 미각어를 생성한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쓰다'와 '끓'의 사전 기술 양상을 살펴보면 기본 의미는 모두 쓴 음식물의 맛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확장 의미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말뭉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확장 의미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쓴맛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대부분 부정적 가치로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경우에는 모두 부정적 확장 의미를 갖는 반면, 중국어의 경우에는 쓴맛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떤 일에 대한 노력하는 태도, 끈기 있게 함을 나타내는 긍정적 확장 의미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의미 확장은 신체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째, 맛에 대한 감각자극을 미각뿐만 아니라 후각, 시각, 청각, 감정으로도 표현하는 공감각적 전이가 일어났다. 공감각(共感覺, synaesthesia)이란 한 감각 영역의 체험이 다른 감각

영역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김중현 2001: 25). 그 중에서 특히 ‘감정’영역에 많은 의미 확장이 일어났는데 이는 부정적인 감정에 쓴맛을 부여한 결과이다.

셋째, 확장 의미를 살펴보면 중국어에서 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넷째, 중국어의 품사적 특징으로 인해 미각형용사 ‘苦’가 동사용법, 부사용법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영역	확장 의미	한국어 ‘쓰다’류		중국어 ‘苦’류	
		양상	가치 의미	양상	가치 의미
미각	식욕이 없음	+	부정	+	부정
후각	불쾌한 냄새	+	부정	+	부정
시각	좋지 않은 표정	+	부정	+	부정
청각	듣기 싫은 소리	+	부정	—	—
감정 및 태도	고통, 괴로움	+	부정	+	부정
	고생시키다	—	—	+	부정
	언짢음, 아쉬움	+	부정	—	—
	노력	—	—	+	긍정
	끈기 있게	—	—	+	긍정
일 사건	좋지 않은 결과, 손해	—	—	+	부정
	경제적 어려움	—	—	+	부정
사람	불행한 사람, 힘든 일을 하는 사람	—	—	+	부정
날씨	추움	—	—	+	부정

<표4> ‘쓰다’와 ‘苦’의 개념화 양상 대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의 의미 확장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봄과 더불어 제2언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도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곽일성, 「한중 감각형용사 파생법 연구 - 색채형용사, 미각형용사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1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2.01.
- 권희정, 「중국어의 미각어 형태 및 의미확장 연구」, 『CHINA연구』, 제5집,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08.08.
- 김동환, 「개념적 혼성에 입각한 은유의 의미구성」, 『담화와 인지』, 제11권 1호, 담화인지학회, 2004.04.
- , 「개념적 통합 연결망의 유형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60권, 언어과학회, 2012.03.
- ,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박이정, 2013.
- 김중현, 「국어 공감각 표현의 인지 언어학적 연구」, 『담화와 인지』, 제8권 2호, 담화인지학회, 2001.
- 김찬구, 「국어의 미각표현어휘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노양진, 「체험주의의 철학적 견해」, 『범한철학』, 제10권, 범한철학학회, 1995.
- 문금현, 「미각어 관련 고정표현에 나타난 다의화와 인지의미 양상」, 『새국어교육』, 제102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 석수영, 「한중 감정 표현의 개념화 양상-미각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제68권, 언어과학회, 2014.03.
- 쉬 야,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미각 고정표현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와 문화』, 제21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7.
- 吕贞男, 「汉韩味觉词的语义与隐喻化特征—酸/시다·甜/달다·苦/쓰다·辣/맵다为主」, 『중어중문학』, 제51권, 한국중어중문학회, 2012.04.
- 이범열, 「현대중국어의 미각어를 통한 감정 표현: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57권, 중국어문학회, 2016.12.
- 이선희, 「‘한·중 중립가치어의 가치 의미 변화 대조 연구 - ‘有+N’과 ‘N+있다’구조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59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18.09.
- 임지룡, 「‘사랑’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제87권, 한국어문학회, 2005.03.
- , 「감각어의 의미 확장 양상과 특성」, 『국어교육연구』, 제63권, 국어교육학회, 2017.02.
- 정수진, 「국어 ‘맛’ 표현의 의미 확장 양상-‘단맛’과 ‘쓴맛’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27권, 한국문화융합학회, 2005.
- 정 은, 「인지적 관점에서의 ‘很+NP’ 구문 연구」, 『중국학』, 제57집, 대한중국학회, 2016.
- 黄伯荣·廖序东,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1991.
- 金善熙, 「汉韩基本味觉词对比研究」, 复旦大学硕士学位论文, 2012.
- 陆俭明, 「关于词的兼类问题」, 『中国语文』, 总第238期, 1994.
- 沈家煊, 「转指和转喻」, 『当代语言学』(第1卷), 1999.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 『现代汉语词典』(第6版), 商务印书馆, 2012.
- 朱德熙,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1982.
-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1980. (노양진·나익주,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https://stdict.korean.go.kr]
-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 [http://ccl.pku.edu.cn]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味覚語, 쓰다, 苦, 语义扩展, 概念化, 概念合成, 韩汉对比		
	영문	Taste Terms, Bitter(쓰다), Bitter/Ku(苦), Meaning Extension, Conceptualization, Conceptual Blending,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div>A Comparative Study of the Meaning Extension of Korean-Chinese Taste Terms "Bitter"(쓰다) and "Bitter/Ku"(苦) : Series Words and its Aspect of Conceptualization</div> <div>Lee, Sun-Hee</div> <p>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examine the meaning extension aimed at taste terms of Korean-Chinese "Bitter"(쓰다) and "Bitter/Ku"(苦) - series words, and its aspect of conceptualization.</p> <p>Primarily, semantic categories described in the dictionary were compared, and based on thi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rpus data, the plentiful expression patterns used in actual language life were classified as the sense of taste, sight, smell, and hearing, emotion and attitude, work and happenings, people, weather areas, and etcetera.</p> <p>Furthermore, o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meaning of these vocabularies, the blended space and the emergent structure of each meaning were described via using the conceptual blending theory that is the fundamental of cognitive linguistics field described by Fauconnier & Turner (1997)</p> <p>The process of the meaning extension of those words is very closely related to physical experience, and the experience of our negative feelings about bitterness has mostly shown negative values in terms of an aspect of the meaning extension as well.</p> <p>In this manner, the meaning extension of the vocabulary is based on human experience, and also found out about existence of respective distinct characteristics due to the cultural difference in respective language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선희 / 李善熙 / Lee, Sun-Hee		
	소 속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과		
	Em@il	molihua16@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8월 20일	심 사 일	2019년 08월 25일
	수 정 일	2019년 09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17일